

# 유달산... 삼학도... 용해동 갓바위... 목포, 미술로 되살아 난다

'목포그리기...' 기획전 31일까지 서울대 우석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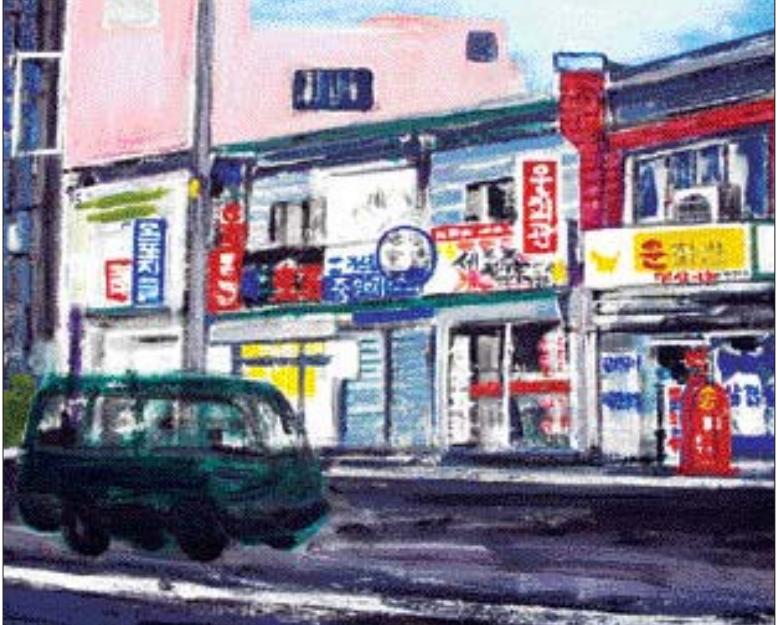
1년간 현장답사·워크숍... 사진·비디오 작품도

목포 오거리, 유달산 일대 일본식 목조 건물, 삼학도, 용해동 갓바위... 현대학 물결에 사라졌던 목포의 옛 공간이 캔버스에서 되살아난다. 목포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들이 목포의 사라진 풍경과 명소를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연다. 목포대 미술대학 조형미술연구소와 서울대 미술대학은 17~31일까지 서울대학 우석홀 갤러리에서 '목포그리기-시간, 장소, 사람'을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가 사라지는 도시 풍경을 화폭에 재현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일환으로, 목포대와 연계해 추진됐다.

20세기초부터 현재까지 목포 지역의 풍경과 삶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도시 전체를 미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미는 '목포 빌리지 프로그램'(Villageum program)을 통해 참여자 있다. 목포의 옛 도심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이번 '목포그리기...' 전에는 목포대 김천일·김창세 교수와 서울대 서용선·심칠웅·안성복 교수, 서암화가 이태란, 정일영 씨, 영국 작가 존 포일씨 등 국내외 작가 18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유달산, 삼학도 등 목포의 구석구석을 찾아 '목포 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 답사와



서용선 작 '목포상가'



김천일 작 '갓바위 마을'

## 27회·산수유... 봄소식

국중효 교수 6년만에 개인전

서양화가 국중효 교수(목포대 미대)가 매화, 산수유 등 불꽃을 화폭에 담아 6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18~2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눈꽃 속의 불나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 교수는 배 밭에서 옹기종기 앉아 풀을 뽑는 아낙네들의 한가로운 모습과 화면을 가득 채운 산수유의 화사함을 통해 남도의 봄 소식을 전한다. 볶질을 여러 번 해 그려낸 꽃은 투박하면서도 거친 질감을 느끼게 해 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배밭의 이미지를 담은 '봄의 소리' 시리즈를 주로 선보인다.

조선대 출신으로 서울, 부산, 광주等地에서 9차례



개인전과 전남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무등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

19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서 공연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단장 성삼온·전남대 국악과 교수)이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 16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광주문예회관이 주최하는 남도소리 상설무대 초청으로 공연을 갖는 연주단은 이번 공연에서 김영재 곡 '춘접무곡', 흥의종 곡 '경북궁 탐령 변주곡', 한진 곡 '빛노래' 주제에 의한 가야금 제주', 25현 가야금을 위한 '개논' 등을 선사한다.

또 황병기 교수가 작곡한 가야금과 플루트를 위한 2중주곡 '달하 노피곰'을 성심은 단장과 플루트스트 박소영씨가 들려준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美 언론개선연구소 "언론 종사자는 줄어"

나라의 뉴스들이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에 그쳤다. 그러나 독자들이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를 찾아가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점은 언론산업이 앞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게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해 인터넷은 언론매체를 민주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인터넷은 기성 언론계에 새로운 목소리와 이야기,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의 신문과 텔레비전, 온라인 매체가 다른 뉴스의 4분의 1 이상이 이라크전과 대통령 선거에 집중된 것으로 미국의 언론개선 연구소인 PEJ가 16일 밝혔다. PEJ는 이날 미 언론매체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폴렸다.

이라크전을 제외할 경우 이란과 파키스탄 및 세계 다른

교수로 재직중인 문정희 시인이 맡는다.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토지문화공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 문의 033-762-6843.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인터넷, 언론 영향력 '기대 이하'

인터넷의 뉴스들이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에 그쳤다. 그러나 독자들이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를 찾아가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점은 언론산업이 앞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게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전통적 의미에서의 뉴스에 대한 독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언론사 요원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PEJ의 톰 로젠텔 소장은 전했다.

NBC 방송이 백악관 출입기자인 데이비드 그레고리에게 저녁시간대 뉴스의 앵커도 겸하도록 한 것은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movies 인기 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한도시립영화사랑 www.joyobo.com/1588-7941	색깔있는 영화신문 www.cinus.co.kr/1544-0070	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1588-9101	세로문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b>메가박스</b> 구.현대아트극사거리 ☎ 예매 1544-0600	<b>엔터 시네마</b>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b>콜롬버스 시네마</b> 상무점 상무점 (삼무빌딩과 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동)	<b>씨너스 전대</b>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b>무등극장</b> 충장로 1가 ☎ 232-9106	<b>제일시네마</b> 충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M관 10,000 BC (15세) 2관 추격자-디지털 (18세) 3관 벤티지포인트 (15세)/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4관 바보 (12세)/マイ뉴파트너 (15세) 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6관 추격자 (18세) 7관 마이블루베리나이츠 (12세)/허밍 (12세) 8관 10,000 BC (15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1관 마이뉴파트너 (15세) 2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3관 바보 (12세)/추격자 (18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연을 죽는 이오 (12세) 6관 마이 뉴 파트너 (15세) 7관 10,000 BC (15세) 8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집결호 (12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10관 10,000 BC (15세)	1관 허밍 (12세)/벤티지포인트 (15세) 2관 미니멀리스트나이츠 (12세)/벤디지포인트 (15세) 3관 바보 (12세)/추격자 (18세) 4관 허밍 (12세) 5관 연을 죽는 이오 (12세) 6관 마이 뉴 파트너 (15세) 7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8관 미니멀리스트나이츠 (12세)/집결호 (12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등극장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극장 시무니오픈시·새벽시	1관 미아뉴파트너 (15세) 2관 밴디지포인트 (15세) 3관 10,000 BC (15세) 4관 바보 (12세)/마이블루베리나이츠 (12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바보 (12세) 7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8관 미니멀리스트나이츠 (12세)/집결호 (12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 무등극장 3시간 • 페미리브리핑 무등극장(구 수원) 3시간 무등극장 • 페미리브리핑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b>광주점 무료팝콘 행사기 종료됐습니다.</b> • 미프유 주차장 이용 시 2시간 30분 무료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료 부과	* 넓고 편안 육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 호남 최대 주차장 ④페미리브리핑 상영합니다 1588-7941 • 페미리브리핑(10관) 절찬 상영 중	ARS 전화예매 1544-0070	인터넷 예매 문의 인터넷 예매 문의 인터넷 예매 문의 인터넷 예매 문의 인터넷 예매 문의	ARS 전화예매 227-1960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